

게임 주제로 근황을 남깁니다. 요새 맨날 게임만 하는데, 예전에 비해 게임 관련 글 쓴 지가 좀 됐네요.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일기 쓴다 생각하고 이런저런 얘기 포함해 좀 길게 늘려서 한 번 써보겠습니다.

전 얼마 전부터 접었던 게임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삼국지 디펜스(이하 삼디), 크루세이더 퀘스트(이하 크퀘), 하스스톤까지.

삼디는 2015년에 접었다가 추억에 잠겨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디펜스 게임이 뭐라고 밥 먹으면서, 기숙사에서 자면서 열심히 하곤 했습니다.

크퀘는 첫 사랑니 뽑고 쉬며 지낼 때 많이 했는데, 2017년에 접었다가 얼마 전 업데이트 종료 소식 듣고 에필로그 볼 요량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여전한 듯 여전하지 않게 조금씩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단순 반복 숙제, 방치 콘텐츠 모두 달갑진 않지만 이런 거 아예 없는 게임 찾는 게 훨씬 힘들죠. 감안하고 해도 여전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각 게임에 대한 리뷰는 게임 별로 나름의 목표 달성 후 따로 남겨보겠습니다.

여하든 오늘 근황 토크 소재는 하스스톤입니다. 저는 하스스톤 배틀 코드 4자리 초창기 유저지만, 당시에는 그냥 계정만 만들고 게임은 플레이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쩌다 만들게 되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친구 따라 만든 건지...

여하든 그렇게 잊고 지내다가 2018년 대학 동기 형 통해 다시 게임을 접하게 됐고, 형 추천으로 위니 흑마 덱 열심히 굴리며 하스스톤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 달간 전설도 찍고 좀 열심히 했다가 잠시 접었다가, 전장 나와서 또 열심히 했다가 접기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정규전 한창 돌릴 때 룩삼 만나서 진짜인지 방송 찿아가고, 그게 뭐라

고 형한테 자랑하고, 그 와중에 게임은 져서 인성질 했던 기억이 떠오듭니다. 왜 나는 힘들거나 부끄러웠던 기억만 생생할까...

어쨌든 그러다 슬슬 재미가 떨어져 2022년 중순쯤 마지막으로 접었습니다. 블리자드에 사건사고도 많았고, 1인 모험의 스토리와 용병단 콘텐츠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버그도 많고 국내 대회나 이벤트도 줄고 시네마틱의 퀄리티는 떨어지고, 한국어 더빙이 사라지고... 때마침 우마무스메 국내 출시된 시기와 맞물려 저는 서브컬처 게임의 세계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게 또 잊고 지내다가, 접었던 게임들 다시 시작할 때 생각나서 복귀하게 됐네요.



하스스톤 모바일 버그 화면



하스스톤 전장에서 특정 이미지가 로드되지 않는 화면

복귀 유저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업별로 덱 하나 고르면 그냥 주더라고요. 마법사 덱 골라서 오랜만에 정규전 열심히 돌렸습니다. 매크로 문제는 여전하더라고요. 플래티넘까지 체감상 9할은 죽음의 기사 매크로 만났던 것 같습 니다. 안 그래도 복귀 유저라 죽음의 기사 직업군도 잘 모르는데 호되게 혼났네요.



어느 정도 등급이 높아지니까 슬슬 무료로 받은 덱으로는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승률 높은 정규전 덱 맞추려면 가루가 많이 필요한데 카드를 갈자니 아깝고, 카드팩을 사자니 돈 쓰기는 좀 아깝고, 대전 외 콘텐츠인 전장이나 용병단은 딱히 끌리지가 않고... 다시 접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예전에는 유료로만 판매했던 모험 모드가 무료로 풀린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골드를 모아 모험 모드를 전부 구매하여 플레이하고 접자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 간간이 골드를 얻기 위해 퀘스트를 깨는 정도로 게임을 즐겼습니다. 목표가 생겼으니 게임을 꾸준히 해야 할 텐데, 번번이 지는 마법사 덱으로 계속 플레이하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어차피 접으면 아껴봤자 똥'이라는 생각으로 시원하게 카드를 갈아 자주 보이던 고승률 성기사 덱을 하나 맞췄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고 밤도 새다가 기어이 전설을 찍었습니다. 나름 월초에 찍은 것 같은데 등수가 일만 등을 넘어서 놀랐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입에 붙이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인기는 꾸준한 듯했습니다. 말뿐만인 '돌크리트'가 아니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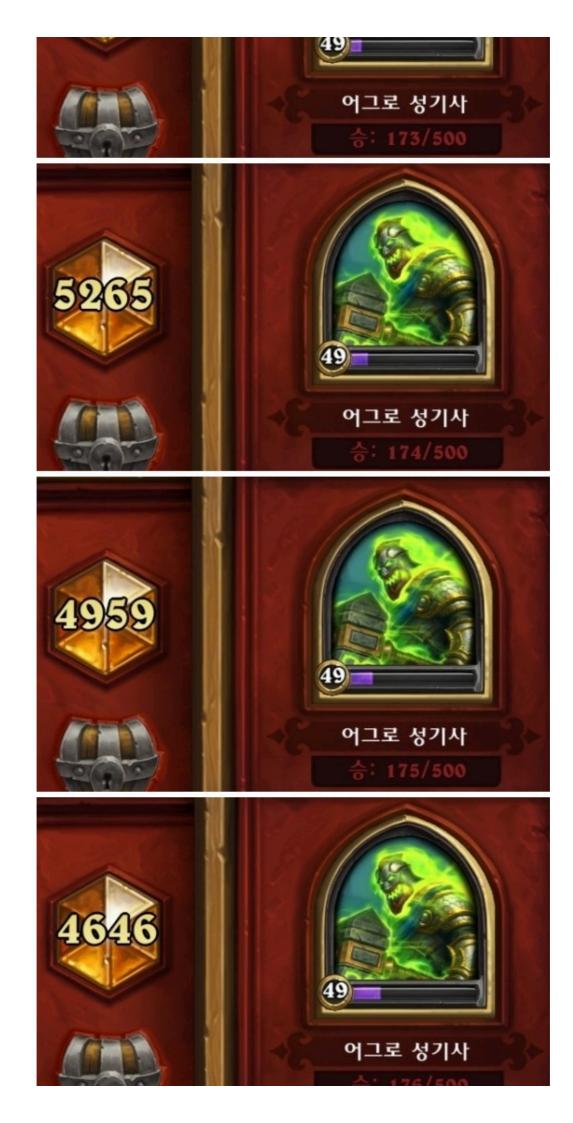


보통 전설 찍으면 만족하고 더 욕심을 내지는 않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자리 등수는 뭔가 멋이 없어서, 네 자리 등수 들어가려고 꾸역꾸역 게임을 더 플레이했습니다. 이기고 지기를 반복해도 등수는 크게 변하지 않으니 슬슬욕심을 버릴까 했다가...

이 글을 쓰기 직전, 거의 1시간 가까이 연승 가도를 달렸습니다. 만 등에서 절반 가까이 등수를 줄였네요. 최고 등수를 남기고 싶어서 8천 등 즈음부터 이길 때마다 캡처를 했는데, 등수 캡처만 열댓 장이 나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게 컸지만, 강한 덱에 몇 번 당하고 멀리건 감을 잡아서 운영 실력이 괜찮아진 것도 컸습니다. 아래에 캡처 사진 묶어서 올려봤습니다. 호들갑 같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캡처된 것만 12연승인데, 승패 확률이 1/2 라 생각하면 1/4096 확률로 나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새삼스럽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 글은 연승하고 신나서 쓰게 된 글입니다. 연승이 폭발시킨 아드레날린이 제 잠자던 비틱 본능을 일깨웠나 봅니다. 덕분에 시즌 N호 포스팅이 멈췄던 블로그에 다시 글을 쓰고 있으니, 뭐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 플레이하면서 느낀 간단한 운영 전략과 덱 코드를 남겨보겠습니다.

- '백작'을 쓰긴 하지만, 이 덱은 가능하면 '고독한 방랑자 리노'가 나올 수 있는 8턴 8코스트 전에 끝내야 하는 덱입니다. 따라서 다든 어그로 덱과 마찬가지로 멀리건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가급적 1코스트 천상의 보호막 하수인과 1코스트 하수인을 둘 소환하는 '덩실덩실'은 필수로, 1코스트부터 최대한 코스트 손실 없이 낼 수 있으면서 필드가 밀리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카드들을 선택적으로 챙기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보통 후공 동전은 2턴에 3코스트 '덩실덩실'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후공은 2코스트 카드보다는 1, 3, 3, 4코스트 카드를 멀리건에서 챙겨가면 좋습니다.
- '뷔페 거물'은 가급적 주입을 채워 4코스트에 바로 낼 수 있는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가져갑니다. 멀리건에서 하수인을 1코스트에 1기 꼴로 소환할 수 있는 '병력 소집', '죄악의 선임 주방장'과 함께 챙기면 궁합이 좋습니다.

- '코토리 라이트블레이드', '혈기사단장 리아드린' 효과를 보면 물론 좋지만, 2코스트 턴이라면 효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영능보다는 그냥 내는 게 좋습니다.
- 성기사는 저와 비슷한 어그로 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든 직업 상대로는 보통 명치만 치지만 성기사는 하수인 버 프 + 광역 딜 카드와 상대 하수인 수만큼 비용이 감소하는 광역 딜 카드가 존재하니 하수인을 정리하며 개체 수를 적당히 조절하고, 천상의 보호막을 최대한 유지해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상대의 도발 하수인 비롯한 필드 하수인을 처리하기 위해 멀리건에서 가능하면 광역기를 챙겨갑니다.
- 드루이드는 용족, 도발이 특징입니다. 명치를 노리고 하수인 정리를 하지는 않되, 나머지는 성기사와 동일하게 대응합니다.
- 언급하지 않은 기타 직업을 상대할 때는 웬만하면 필드 정리 없이 명치만 노립니다. 카드 잘 뽑고 상대가 못 뽑으면 이깁니다.

덱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노란 배경색으로 된 덱 코드를 복사한 뒤 하스스톤 '수집품' 페이지 들어가시면 덱 복사가 됩니다. HSReplay의 '어그로 성기사'를 조금 변형한 것인데, 원본 덱 링크도 함께 첨부합니다.

어그로 성기사

직업: 성기사

대전 방식: 정규

늑대의 해

#

- # 2x (1) 죄악의 선임 주방장
- # 2x (1) 핏빛 병사
- # 1x (2) 가자 은빛날개
- # 1x (2) 결투 개시!
- # 2x (2) 아달의 수호자
- # 1x (2) 코토리 라이트블레이드
- # 2x (2) 쿠엘탈라스를 위하여!
- # 1x (2) 혈기사단장 리아드린
- # 2x (3) 덩실덩실
- # 2x (3) 병력 소집
- # 1x (3) 청지기 스튜어트
- # 2x (3) 피의 문장
- # 2x (4) 뷔페 거물
- # 2x (4) 성전사의 오라
- # 2x (4) 수호자의 힘
- # 1x (6) 바람의 군주의 관악기
- # 1x (7) 백작
- # 1x (7) 오색 광선
- # 2x (10) 정원의 은총

#

AAECAb7jAwiG4gSh4gTC4gSElgX26AWZjga8jwb1lQYL2r0Ev+lEzOlEq5MFgZYFg5YFwcQFlPUFlfUFjpUGtZ4GAAA=

#

이 덱을 사용하려면 클립보드에 복사한 후 하스스톤에서 새로운 덱을 만드세요.

